

예— 서로서천¹⁾ 저 토산(兎山) 요드레한집²⁾ 본산국³⁾ 난산국 본풀어⁴⁾ 올립네다.

본산국이 어덜런고. 난산국이 어덜런고.

나주 영산(羅州靈山) 금성산(錦城山)서 솟아나.

그 므을(里)에 목스(牧使)가 들민 석 돌 열흘 백일(百日)을 채우지 못하여 봉곡파지(封庫罷職)이
될 때, 그 므을에 양이목스(梁牧使) 말을 하되

『나를 목스(牧使) 시겨주민 석 달 열흘 벨일(百日) 윤삭(閏朔)을 채울노라.』⁵⁾

『예, 걸랑⁶⁾ 그리 하옵소서.』

목스(牧使)를 시겨 삼만관속(三獻官屬) 육방하인(六房下人) 거느리고 와라치라⁷⁾ 올라갈 때,

『성주(城主)님아. 성주님아. 하매(下馬)옵서. 이 산은 영기(靈氣)가 있입네다.』

『야, 이 므을(里)에 토지관(土地官)이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있겠느냐?』

언만⁸⁾ 아니 가 물발(馬足)이 둥둥이 절아가니,

『이것이 영급(靈及)이나?』

『이것이 영급입네다.』

단매(單馬) 단구중(單驅從)하여 와라치라 올라가고 보니, 웨지둥에⁹⁾ 청지에집¹⁰⁾ 팔칸집(八間家)
을 무어¹¹⁾ 샅뵈¹²⁾ 워얼궁(月宮)에 시네(仙女) 7튼 아기씨가 반달(半月) 7튼 용얼레기로¹³⁾ 신대
жат 머리(五十五尺髮) 쉬인시리¹⁴⁾ 굴럼시니¹⁵⁾

『어느 것이 구신(鬼神)이나?』

『저것이 구신입네다.』

『구신(鬼神)이 사름¹⁶⁾ 될 리가 있겠느냐? 네 몸으로 환생(還生)하여 보라.』

웃아구린¹⁷⁾ 하늘에 가 부떠¹⁸⁾ 알아구린 지애(地下)에 가 부떠 천지 대맹이(天地大蟒)가 뒹여지니,

1) 서로서천: 서(西)로 서천(西天).

2) 요드레한집: 8일당신(八日堂神).

3) 본산국: 본(本). 본초(本初). 본래(本來) 태어난 곳과 그 내력.

4) 본풀어: 본을 풀어. 근본 내력을 풀어.

5) 채울노라.: 채우겠노라.

6) 걸랑: 그릇일랑.

7) 와라치라: 고관이 행차할 때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.

8) 언만: 얼마.

9) 웨지둥에: 외기둥(單柱).

10) 청지에집: 청기와집.

11) 무어: 지어의 뜻.

12) 샅뵈: 사육되.

13) 용얼레기로: 얼레빗.

14) 쉬인시리: 설설이가 『선대자』에 유추(類推) 조운(調韻)된 것.

15) 굴럼시니: 가리고 있으니, 빚고 있으니.

16) 사름: 사람.

17) 웃아구린: 웃 아가리는.

18) 부떠: 붙어.

『더럽고 누추(陋醜)하다. 이 묵을(里)에 불질 잘 하는 포수(砲手) 있겠느냐?』

『있읍네다.』

『개 잘 드는 정스령(鄭使令) 있겠느냐?』

『있읍네다.』

불러다가 다투(四偶)에 불 삼박 놓아가니, 앓일 디도¹⁹⁾ 었어진다. 살 디도²⁰⁾ 었어진다. 요만하
민 어찌하리. 금바독도²¹⁾ 뒤편간다. 옥(玉)바독도 뒤편간다. 은(은)바독도 뒤편간다.

행기포에²²⁾ 뚝뚝²³⁾ 싸아지여²⁴⁾ 서울 종로(鐘路) 다투리²⁵⁾ 떨어지엿더니, 제주(濟州) 강씨성방
(康氏刑房) 오씨성방(吳氏刑房) 메역²⁶⁾ 진상(進上) 가앗다가 금(金)바독도 봉갸고나.²⁷⁾ 옥바독도
봉갸고나.

『야, 요것도 나라에 상납(上納)할 만하다.』

그만 데껴두고²⁸⁾ 제주(濟州)레레 응(應)하저 할 때, 브름 궁기²⁹⁾ 막아 베질할 수 못내 뒤편³⁰⁾
문복문점(問卜問占) 디려간다.

『강씨(姜氏)아기, 행기포를 클러³¹⁾ 봅서. 난디엿는 보물(寶物)이 싹구나.³²⁾ 선왕(船王)에³³⁾ 도
올려³⁴⁾ 방광³⁵⁾ 삼체³⁶⁾ 누울리민³⁷⁾ 멩지와당³⁸⁾ 실브름이³⁹⁾ 시르르르 불어올 듯하오리다.』

아닐씨라,⁴⁰⁾ 행기포를 클러보니 난디엿는 보물이로고나. 선왕(船王)에 도올려 방광 삼체 누울리
니 멩지와당(明紬海) 실브름이 시르르르르르르르 불어옴뎌, 열누니(溫坪里)⁴¹⁾ 수전개로⁴²⁾ 배(船)
를 부찌, 멩호부인에⁴³⁾ 멩암(名啣) 훈장 디렸더니,

『이 묵을(里)에 토지관(土地官)이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었어진다. 땅도 내 땅이요. 물도 내 물
이여. 즈손 가정(子孫家庭) 내 즈손이 뒤편지니 어서 나고 가라.』

19) 디도: 앓을 데.

20) 디도: 설 데.

21) 금바독도: 금(金)바독들.

22) 행기포에: 행주보자기. 보자기의 뜻.

23) 뚝뚝: 단단하게 감거나 싸는 모양.

24) 싸아지여: 싸지어.

25) 다투리: 네거리.

26) 메역: 미역.

27) 봉갸고나: 주웠구나.

28) 데껴두고: 던져두고.

29) 궁기: 바람 구멍. 「브름궁기 막았다」함은 바람기 하나 없다는 뜻.

30) 뒤편: 못 되니.

31) 클러: 끄러. 풀어.

32) 싹구나: 있구나.

33) 선왕(船王)에: 선신(船神).

34) 도올려: 도루올려.

35) 방광: 제차명(祭次名).

36) 삼체: 세번.

37) 누울리민: 올리면. 또는 어떤 무제(巫祭)를 행하다의 뜻으로 씀. 예) 백지알대김 누울리다.

38) 멩지와당: 명주(明紬) 바다. 매우 잔잔한 바다.

39) 실브름이: 실바람.

40) 아닐씨라: 아닌게아니라. 아니나다를까.

41) 열누니(溫坪里): 성산면(城山面) 리명(里名).

42) 수전개로: 온평리(溫平里)의 포명(浦名).

43) 멩호부인에: 온평리(溫平里) 본향당신.

『예, 어딜 가민 임제⁴⁴⁾ 엇는 묵을이 있겠읍네까?』

『해돋잇 방⁴⁵⁾ 저 토산(兎山)을 가고 보라.』

『예.』

묵은 열룬이(舊溫坪里) 새열룬이(新溫坪里) 나아사고⁴⁶⁾ 곰배물로⁴⁷⁾ 삼달리(三達里) 황서국서⁴⁸⁾ 영끼(令旗)를 불러두고 나가는다,

하천이(下川里) 개로옥서또가⁴⁹⁾ 탈상봉⁵⁰⁾ 중허리에 앓아 바독 장기(將棋) 딱딱 두더니 월궁(月宮)에 시네(仙女) ㄱ튼 아기씨가 넘어간다.

『남즈(男子)의 기십이라⁵¹⁾ 기냥⁵²⁾ 둘 수 웃다. 어서 둔저.』⁵³⁾

산지꼴로⁵⁴⁾ 내들으고⁵⁵⁾ 왕꼴로⁵⁶⁾ 저 토산을 둘러들어 은찐 ㄱ튼⁵⁷⁾ 흘묵이를⁵⁸⁾ 쥐여잡나.⁵⁹⁾

『얼굴은 양반(兩班)이로뵈 행실(行實)은 꽤쌌ㅎ다. 더러운 놈 심어난⁶⁰⁾ 흘묵이 기냥 둘 수 웃다.』

장도칼(粧刀) 앓아내여⁶¹⁾ 삭삭 가까두고⁶²⁾ 남수와지(藍水禾紬) 던데(戰帶)로 허허 칭칭 감아 놓고 저 토산(兎山) 메뚜기무루⁶³⁾ 좌정(坐定)ㅎ니, 야, 그만하민 앓일 만도 ㅎ다. 살만도 허여진 다.⁶⁴⁾

요왕국(龍王國)의 둘러드니,

『어찌허여 네의 우의⁶⁵⁾ 놀랑놀핏내가⁶⁶⁾ 나시느냐?』

『예, 하천이(下川里) 개로옥서또가 언약(言約)엇이 은찐 ㄱ튼 흘묵을 비여잡기에⁶⁷⁾ 은장도(銀粧刀)로 가까 데졌읍네다.』

『꽤쌌ㅎ다. 개로옥서또 말을 아니 들엇고나. 꽤쌌ㅎ다.』

후욕(詬辱)ㅎ니,

올라사며, 개로옥서또 홉번 불러 편편⁶⁸⁾ 두번 불러 편편 식번(三番) 불러도 편편홉뵈 토산(兎

44) 임제: 임자.

45) 방: 해돋는 방위.

46) 나아사고: 나서고.

47) 곰배물로: 성산면 삼달리(城山面三達里)의 지명.

48) 황서국서: 삼달리(三達里)의 당신명(堂神名).

49) 개로옥서또가: 표선면 하천리(表善面下川里)의 당신명(堂神名).

50) 탈상봉: 하천리(下川里)의 악명(岳名).

51) 기십이라: 기습(氣習). 기개(氣概)의 뜻.

52) 기냥: 그대로.

53) 둔저: 달자(走).

54) 산지꼴로: 표선면 성읍리(表善面城邑里) 지명.

55) 내들으고: 내닫고.

56) 왕꼴로: 표선면 가시리(表善面伽時里) 지명.

57) ㄱ튼: 온길 같은.

58) 흘묵이를: 팔묵을.

59) 쥐여잡나: 쥐어잡는다.

60) 심어난: 잡았던.

61) 앓아내여: 가져내어.

62) 가까두고: 깎아두고.

63) 메뚜기무루: 토산리(토산리) 지명. 이 당이 있는 곳.

64) 허여진다: 설 만도 하다.

65) 우의: 네 위에.

66) 놀랑놀핏내가: 날피 냄새.

67) 비여잡기에: 덩석 잡기에.

山) 알당(下堂)으론⁶⁹⁾ 연불(煙火)이 나민 하천이(下川里) 고첫당으론⁷⁰⁾ 신불(神火)이 나고 신불(神火) 연불(煙火)로 언약(言約)을 힙네다.

칠년 한기(七年旱氣) 구년 숭이(九年凶年)가 지어, 한집님이 아바님 입단⁷¹⁾ 이장(衣裝)이여 어머니 입단 이장(衣裝)이여 왕대구덕에⁷²⁾ 거두설러⁷³⁾ 뿔방⁷⁴⁾ 걸어 지어놓고 서답막개⁷⁵⁾ 둘러잡아 느진덕정하님⁷⁶⁾ 거느리고 올리소로⁷⁷⁾ 연서답을⁷⁸⁾ 느렸더니, 느진덕아정하님 말을 흐뵈.

『상전(上典)님아, 저거 봅서. 검은여코지로⁷⁹⁾ 막을(里)에 도둑(盜賊)이 근당(近當)허여 옹네다.』

제주산(濟州山)은 악산(惡山)이 뉘옵길레 모진 돌풍(突風)이 불어가니, 판대선(板子船)이 뿔게 트듯⁸⁰⁾ 트었다가 모도 문⁸¹⁾ 판나 무쇄도진⁸²⁾ 요왕국(龍王國)에 바쳐두고, 다리 훈착⁸³⁾ 풀⁸⁴⁾ 훈 착 엇인 놉 세(舌) 줄라⁸⁵⁾ 말통입⁸⁶⁾ 못흐는 놉덜이 조롬에⁸⁷⁾ 바짝 톨락오라가니,⁸⁸⁾

『상전(上典)님아, 저거 봅서. 도둑이 근당힙네다. 옹서. 어서 가져.』

물 잘잘흐는⁸⁹⁾ 연서답을 거두설러 지어놓고 안꾼⁹⁰⁾ 성창(船倉) 한⁹¹⁾ 성창을 나아사,

『상전님아, 치맏곰이⁹²⁾ 클러점수다.』⁹³⁾

『치맏곰이 클러지고 허릿곰이 클러지고, 이녁(自己) 몸이나 감추와 보저.⁹⁴⁾ 조롬이 난들⁹⁵⁾ 밋이⁹⁶⁾ 나느냐, 밋이 난들 조롬이 나느냐. 어서 돈자.』⁹⁷⁾

고쩌⁹⁸⁾ 내들으니 묵은 각단⁹⁹⁾ 새각단뵈 돌려드니,

『상전(上典)님아 머리로 뵈이 늣네다.』

68) 편편: 불러도 대답이 없는 모양.

69) 알당(下堂)으론: 이 토산 여드랫당이 아래쪽에 있으므로 「알당」이라 함.

70) 고첫당으론: 하천리(下川里)의 당 이름.

71) 입단: 입던.

72) 왕대구덕에: 왕대바구니.

73) 거두설러: 거두어. 설것이하여.

74) 뿔방: 뿔뿔.

75) 서답막개: 빨랫방망이.

76) 느진덕정하님: 하녀를 일컫는 말.

77) 올리소로: 토산리(兎山里) 소명(沼名).

78) 연서답을: 빨래. 「연-」은 조율음(調律音).

79) 검은여코지로: 토산리(兎山里) 해변의 이름.

80) 트듯: 독교(獨轎) 뜨듯.

81) 문: 모두.

82) 무쇄도진: 미상. 부서지다는 뜻인 듯.

83) 훈착: 한쪽.

84) 풀: 팔.

85) 줄라: 짧아.

86) 말통입: 말 통역(通譯).

87) 조롬에: 꿈무니에.

88) 톨락오라가니: 따라와가니.

89) 잘잘흐는: 물이 질질 흐르는.

90) 안꾼: 작은의 뜻.

91) 한: 큰. 관용조율음(慣用調律音)임.

92) 치맏곰이: 치맏고름.

93) 클러점수다: 끌려집니다. 풀어지고 있습니다.

94) 보저: 감추어 보고자.

95) 난들: 꿈무니가 나온들.

96) 밋이: 밋. 여기서는 성기(性器)를 말함.

97) 돈자: 달자(走).

98) 고쩌: 다시.

99) 각단: 길이가 짧은 띠.

『평이 놓고 지(雉)가 놓고, 어서 돈져.』

묵은 각단 새각단뵈 돌려드니 조룸에 마을에청 근당(近當)허여, 평 곱아난디¹⁰⁰⁾ 곱아보저¹⁰¹⁾ 머리를 숙여가니 뒤으로 놀려들어 은찐 ㄱ똥 흘목을 비여잡나, 연적(硯滴) ㄱ똥 젖통을¹⁰²⁾ 비여 잡아 이쨍저쨍 좌우행천,¹⁰³⁾ 금시상(今世上)을 브려간다.¹⁰⁴⁾

예문은 동산¹⁰⁵⁾ 쌍묘산(雙墓)은 무어두고 어딜 가료.

혼정(魂精)은 가시리(伽時里)¹⁰⁶⁾ 펜안 강씨(康氏) 아기신디¹⁰⁷⁾ 간다. 강씨(康氏)아기 웨똥아기 (獨女) 이어방에¹⁰⁸⁾ 식쿨방에¹⁰⁹⁾ 이어방에 물보리¹¹⁰⁾ 방에 지엄구나.¹¹¹⁾ 식쿨방에가 새글러간다.¹¹²⁾ 신대쟈(五十五尺) 머리는 총배 ㄱ찌¹¹³⁾ 감아지고 참썰 ㄱ똥¹¹⁴⁾ 막음은 만제중에¹¹⁵⁾ 흐터지고 일가방상(一家親族) 몰라지고.

요만호민 어찌호료.

조시문이¹¹⁶⁾ 불러 문즘(問占)을 디렸더니,

『마을에청¹¹⁷⁾ 당헤여시니 큰굿이나 허여 봅서.』

『걸랑 그리 허여.』

불분¹¹⁸⁾ 텍일(擇日) 불분 정성(精誠) 허여다가 큰굿을 시작허여 초감제가¹¹⁹⁾ 넘어들어 가니, 굽도 잡도¹²⁰⁾ 못허던 아기가 오돌랑이¹²¹⁾ 일어나 나사¹²²⁾

『아바님아, 어머님아, 어느 누게¹²³⁾ 울은¹²⁴⁾ 굽입네까?』

『너를 살리저 굽이노라.』

『신의무당¹²⁵⁾ 어느 누게 살리저 굽이나?』

『아기씨상전(上典) 살리저 굽입네다.』

100) 곱아난디: 숨었던 곳에.

101) 곱아보저: 숨어 보고자.

102) 젖통을: 젖통이.

103) 좌우행천: 성교(性交)함을 일컫는 말.

104) 브려간다: 버려간다.

105) 동산: 토산리(兎山里)의 지명. 이 당신(堂神)의 묘(墓)가 있다는 동산.

106) 가시리(伽時里): 표선면(表善面) 가시리(伽時里).

107) 아기신디: -한테, -에게, 여격(與格).

108) 이어방에: 방아노래의 선·후렴구(先後敍句).

109) 식쿨방에: 식쿨방애와 같음.

110) 물보리: 보리를 찧기 위해 물에 담가 물기가 오른 보리.

111) 지엄구나: 찧고 있구나. 찧는구나.

112) 새글러간다: 사이가 틀려간다.

113) 총배 ㄱ찌: 총바. 총으로 끈 밧줄.

114) ㄱ똥: 참실 같은.

115) 만제중에: 미상. 정신이 혼미(昏迷)함을 뜻한 말.

116) 조시문이: 점자(占者)의 이름.

117) 『마을에청: 『마을』은 동리의 사령(死靈)을 뜻하고 『-청』은 여럿을 일컬을 때 붙이는 접미사.

118) 불분: 불(火) 본(見). 매우 바쁜 뜻.

119) 초감제가: 청신(請神)하는 제차명(祭次名).

120) 잡도: 『굽도』에 맞춘 조운구.

121) 오돌랑이: 누웠다가 매우 가볍게 일어나는 모양.

122) 나사: 나서서.

123) 누게: 누구.

124) 울은: 위해서 하는.

125) 『신의무당: 신의 무당(巫堂). 무격(巫覡)을 일컫는 말.

『나를 살리저 굿이민 쾌상(櫃床) 연갑(硯匣) 열고 보민 아바님 쳇(初) 서울 간 때 물멧지(-明紬)도 동에전¹²⁶⁾ 강멧지(-明紬)도 동에전 이시니, 마은대자(四十五尺) 끈어놓아 이 내 간장(肝臟) 풀려줍서. 서른대자(三十五尺) 끈어놓아 이 내 간장 풀려줍서. 수물대자 끊어놓아 이 내 간장 풀려줍서. ㅁ친¹²⁷⁾ 간장 풀려줍서.』

쾌상(櫃床) 연갑 열고 보니 물멧지(水禾紬)도 도에전 강멧지(-明紬)도 도에전 이서¹²⁸⁾ 내풀이니 청(靑)만주에미¹²⁹⁾ 흑(黑)만주에미 ㅄㅄ 몰라¹³⁰⁾ 죽어시니,

『이는 어찌허여 좋으리요. 대백지(大白紙) 훈장 내여 놓서.』

대백지 훈장 내여 노니, 그 얼굴에 그 서늱(形容)에 메치기상¹³¹⁾ 그려놓고 열두석에¹³²⁾ 노념만판¹³³⁾ ㅎ시웁고 지어진봉허여가니¹³⁴⁾

『이만 허여 신병(身病) 아니 좋겟읍네다. 우리 조롬에¹³⁵⁾ 마을에청 이서지니 군줄(軍卒) 나줄(羅卒) 데접(待接)허여주웁소서.』

『어찌하민 좋으리요.』

밧갈쉐를¹³⁶⁾ ㅅ어내여¹³⁷⁾ 쉼(牛)잡아 전물제(拴物祭) 닻(鷄)잡아 전물제 지어진봉(進封)하웨,

『요리 허여도 신병(身病)이 시원이 좋지 아녀겟읍네다.』

『어찌ㅎ민 좋겟느냐?』

『큰굿허여난 딘 뒤맛입네다.¹³⁸⁾ 베(船)는 ㅅ트민 연신맛입네다.¹³⁹⁾ ㅅ은 ㅅ트민 성주맛이웨다. 베(船)를 ㅅ어 뒤맛이를 허여 ㅅ서.』

『어서 걸랑 그리ㅎ라.』

황기도치¹⁴⁰⁾ 둘러메고 굴미굴산¹⁴¹⁾ 올라가서 백가ㅅ 낭¹⁴²⁾ 비여잡아 어숙비숙¹⁴³⁾ 가까다가 어작션을¹⁴⁴⁾ 지어 놓고, ㅅ으로¹⁴⁵⁾ 올라사민 초기(樵楫) ㅅ상(進上)허여 간다. 중산촌(中山村)으로

126) 동에전: 전(全) 동.

127) ㅁ친: 맺혀진. 응결(응결)된.

128) 이서: 있어.

129) 청(靑)만주에미: 작은 뱀..

130) 몰라: 바짝 말라.

131) 메치기상: 가기상(假氣像). 「메치-」의 뜻은 불명확(不明確)하나 죽은 뱀의 모습을 그린 것을 「메치기상」, 익사(溺死)해 찾지 못하는 시체를 ㅅ으로 가조(假造)한 것을 「메치메장」이라는 식으로 씀.

132) 열두석에: 열두거리와 같은 말. 큰 ㅅ을 할 때 하나의 제차(祭次)가 끝날 때마다 「석살림」을 하는데, 4당클의 큰ㅅ에는 석살림을 열두번 하게 되므로 「열두석」이라 하고 중당클(三당클) ㅅ에는 여섯석. 앓은제(앓아서 복, 장고만 써서 하는 ㅅ)에 세석을 놀게 됨.

133) 노념만판: 만판 놀기.

134) 지어진봉허여가니: ㅅ봉(進封)해 가니. 「지어-」는 조운음(調韻音).

135) 조롬에: ㅅ무니에. 뒤에의 뜻.

136) 밧갈쉐를: 밧갈소. ㅅ 빈우(牝牛).

137) ㅅ어내여: ㅅ어내어.

138) 뒤맛입네다: 큰ㅅ이 끝난 후 1주일 만에. ㅅ을 할 때 대접 못받은 신들이나 하위신(下位神)을 대접하는 뜻으로 하는 ㅅ.

139) 연신맛입네다: 배를 ㅅ조(新造)했을 때나 ㅅ어시(出漁時) ㅅ어(豐漁)를 비는 뜻으로 배에서 하는 ㅅ. 보통 「연신」이라고 함.

140) 황기도치: 「황기」나 「도치」나 모두 도끼.

141) 굴미굴산: 매우 깊은 산이란 뜻으로 씀.

142) 낭: 백가지 나무.

143) 어숙비숙: 경사(傾斜)지계의 뜻.

144) 어작션을: 고기낚이 배.

145) ㅅ으로: 숲(藪).

느려사면 땡유지(唐柚子)여 소유지(小柚子)여 미이깡(密柑)에 거언감(金柑)에, 식손(三指) 벌린 고와리여,¹⁴⁶⁾ 두손(三掌) 납작 콩늑 물에,¹⁴⁷⁾ 코송코송¹⁴⁸⁾ 미나리체 지어진봉(進封) 허여간다. 헤각(海角)으로 느려사민¹⁴⁹⁾ 동이와당(東海一) 대전복(大全鰲) 서이와당(西海一) 소전복 우미여,¹⁵⁰⁾ 전각이여¹⁵¹⁾ 천초(天草)여, 진상(進上) 추어실러¹⁵²⁾ 베(船)를 부찌가니, 멩지와당(明紬海) 실브름이 시르르 불어가 아기씨 신병(身病) 좋은 법입네다.

한집님은 청명(淸明) 삼월(三月)이 나민 궁기 궁기¹⁵³⁾ 솟아나고 구시월(九十月) 산강일(霜降日)이 뉘민 궁기 궁기 쉬여 들던¹⁵⁴⁾ 어진 한집은 동순력(東巡歷) 서순력(西巡歷)을 돌암시민¹⁵⁵⁾ 무지훈 인간(人間) 둘러들어 타살(他殺)하고 선달호민¹⁵⁶⁾ 열(魂)은 여리고 신(神)은 브튼¹⁵⁷⁾ 족손 가정(子孫家庭) 당허여 가민 큰곳에 열두석 노념 받고 앓인제¹⁵⁸⁾ 제삼석¹⁵⁹⁾ 노념 받던 한집입네다.

강씨(康氏) 애긴 상단꺈(上丹骨) 오씨(吳氏) 애긴 중단꺈 한씨(韓氏) 액긴 하단꺈(下丹骨) 무어 오던¹⁶⁰⁾ 영급(靈及) 좋은 조상(祖上).

오동짓들(十一月)은 초일꺈(初七日) 초오드레(初八日) 여릴꺈(十七日) 여레드레(十八日) 쑤무일꺈(二十七日) 쑤무오드레(二十八日) 물(水)이 더워 시뉴월(六月)도 초일꺈 초오드레 여릴꺈 여레드레 쑤무일꺈 쑤무오드레 제일(祭日) 받던 어진 한집입네다.

족손가정(子孫家庭)에 열두승엄(十二凶驗) 주어가민 지어진봉(進封) 받아오던 영급(靈及) 좋은 한집님.

불쌍한 족손덜 기자¹⁶¹⁾ 구지령¹⁶²⁾ 허물 징상(徵狀)이랑 다 걷게 허여 줍서. 훈 이 곳입네다…….

- 表善面 城邑里 男巫 韓元平 口誦

현용준, 『제주도 무속자료사전』, 신구문화사, 1980, pp.712-721.

146) 고와리여: 고살.

147) 콩늑 물에: 콩나물.

148) 코송코송: 냄새가 구수함의 표현.

149) 느려사민: 내려서면.

150) 우미여: 우무. 천초(天草).

151) 전각이여: 청각(靑角).

152) 추어실러: 처실어.

153) 궁기: 구멍 구멍마다.

154) 들던: 쉬어들어가던(休入).

155) 돌암시민: 돌고 있으면.

156) 선달호민: 「타살」에 맞춘 조운구.

157) 브튼: 빠듯한.

158) 앓인제: 심방(神房) 1인이 앉아서 북, 장고만 써서 하는 작은굿.

159) 제삼석: 석살림을 세 번 함의 뜻. 또는 푸다시 따위 곳을 한 자리에서 세 번 되풀이함의 뜻.

160) 무어오던: 맺어오던.

161) 기자: 그저.

162) 구지령: 곳은.